

총련 결성과 재일조선인 민족교육 - 박종상의 『봄비』와 량우직의 『서곡』에 나타난 총련 결성 시기 ‘조선학교’의 재현양상을 중심으로 - **

윤 송 아

(동덕여자대학교 한중미래연구소 학술연구교수)

◆ 국문초록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가 결성된 1955년은 재일조선인 운동과 민족교육의 전환에 있어서 새로운 분기점이 되는 시기이다. 북한의 해외공민으로서의 자각과 직접적인 연계를 기반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민족교육의 물리적, 사상적 토대가 마련되고 교육체제의 개편이 이루어지며, ‘조선학교’가 뚜렷한 방향성을 담보로 민족적 정체성을 구현, 표출하기 시작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총련 결성의 의의와 변별점에 주목하여, 1955년 총련 결성 직후의 조선학교를 배경으로 민족교육의 현실을 그려낸 장편소설인 박종상의 『봄비』와 량우직의 『서곡』을 중심으로, 재일조선인 문학에 나타난 총련 결성 시기 ‘조선학교’의 재현양상에 대해 고찰하였다. 두 작품에는 학교건설사업이라는 동일한 주제 아래, 민족교육원의 지칠 줄 모르는 헌신과 도전, 학생들에 대한 사랑과 실천적 교육활동이 다각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또한 ‘민단’을 주축으로 한 적대세력의 끊임없는 방해공작으로, 계획한 교육사업들이 번번이 수포로 돌아가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조선학교를 둘러싼 교원과 지역동포들의 조직적인 단합, 그리고 북한 조국으로부터 전달된 교육원조비로 말미암아 학교건설사업의 당면과제가 마침내 성취되는 희망의 서사가 나란히 전개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두 소설에 나타나는 공통된 주제의식과 인물의 전형성, 사건의 추이 등을 중점적으로 고찰함으로써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B5A02037451).

** 본고는 2019년 7월 18일 건국대학교에서 열린 건국대학교 아시아·디아스포라 연구소 국내학술대회 <디아스포라 연구의 현황과 미래>의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총련 결성과 민족교육의 상관성, 당대를 다룬 '조선학교' 주제 작품의 일관된 서사구조와 성격창조의 과정, 민족교육을 둘러싼 재일조선인의 고난과 투쟁, 극복의 역사를 전경화하였다.

주제어 : 재일조선인 민족교육, 총련, 조선학교, 박종상, 『봄비』, 량우직, 『서곡』, 학교건설사업

1. 재일조선인 민족교육과 조선어 문학

식민지 일본땅에서 해방을 맞은 조선인에게 가장 절실한 당면 과제는 조국 한반도로의 귀환이었다. 1945년 10월, 재일조선인의 권리를 수호하고 민족적 자각을 높이기 위한 전국 대중조직으로 '조련'(재일본조선인연맹)이 결성되었다. 조련은 '해방 후 급류와 같은 귀국 동포'의 궁핍한 생활을 지원하고 안전한 귀환을 돕는 것¹⁾을 최대 목표로 삼았으며, 이를 위해 일본의 황민화교육으로 민족의 말과 얼을 잃어버린 재일조선인 아이들에게 조선어를 가르치는 민족교육을 우선적으로 시행했다. 해방 직후 일본 전역에 세워진 600-700여 개의 국어강습소(한글학원, 초등학교, 조련학원)는 조선어 교육에 대한 재일조선인의 열망과 필요성을 대변한 것으로, 이후 조련의 조직적인 정비와 교재편찬, 강사양성 등의 교육사업을 기반으로 전국의 국어강습소는 체계적인 학교교육의 형태를 갖추나가게 된다. 1946년 이후 귀환 행렬이 급속히 감소하면서 60여만 명의 재일조선인이 일본에 잔류하게 되고, 애초 귀국을 목적으로 시작된 한글 강습, 식자(識字)교육은 본격적인 재일조선인 민족교육의 장으로 확대, 발전함으로써 구식민지 중주국 일본에서 민족적 정체성과 탈식민성을 구현하기 위한 가장 근원적이고 핵심적인 토대가 된다.²⁾

1) 윤건차, 『자이니치의 정신사』, 박진우 외 옮김, 한겨레출판, 2016, 149쪽.

2) 줄고, 「재일조선인 문학에 나타난 민족교육의 역사와 탈식민성-『보쿠라노하타』의 초창기 민족교육 재현양상을 중심으로-」, 『동남어문논집』 47집, 동남어문학회, 2019. 참조.

그러나 이처럼 ‘해방민족’으로서의 민족적 자긍심을 세우고 민족의 말과 역사, 문화를 전수하고자 했던 ‘조선학교’는 GHQ와 일본당국의 강압적인 탄압정책으로 말미암아 끊임없는 고난의 길을 걷게 된다. 재일조선인 교육 투쟁의 시발점이 된 1948년 4월 24일의 ‘한신(阪神)교육투쟁(4.24교육투쟁)’을 시작으로, 조선학교 폐쇄정책(1948-49) 및 일본학교로의 전입을 통한 동화교육의 강제, 1952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발효 이후 외국인등록법에 따른 취학의무제의 폐지와 1965년 외국인학교법안 상정 등, ‘조선학교’는 폭력적인 민족교육말살정책과 공적(公的)교육 보장 배제라는 차별정책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왔으며, 이러한 탄압과 차별에 맞선 조선학교의 투쟁은 70여 년의 세월이 지난 현재까지 고교무상화제도 적용을 위한 재판투쟁과 조선유치반 유보무상화 배제 반대투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식민지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강제된 동화·배제정책으로 말미암아 현재는 60여 개³⁾의 소수 학교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조선학교’는 엄연히 유치원으로부터 초·중·고급학교를 거쳐 대학에 이르기까지 독자적이고 유서 깊은 민족교육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해방 이후 일관되게 조선어와 조선 역사를 가르치고 조선의 문화와 전통을 계승하며, 남북한과 일본을 아우르는 민족적/탈식민적/통합적 정체성을 지닌 재일조선인 학생들을 길러내고 있다. 이는 조련—민전(재일조선통일민주전선)—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으로 이어지는 민족조직의 체계적인 교육사업을 바탕으로 하여 헌신적인 재일조선인 당사자들의 노력과 투자가 뒷받침된 결과이다. 이와 더불어 1957년부터 시작된 북한의 교육원조비 및 장학금 송금과 조국 연계의 교육시스템 구축은 조선학교가 ‘조선어’를 기반으로 한 민족학교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해왔다.

해방 이후 당대의 재일조선인 문학자들은 민족어인 ‘조선어’와 기존의

3) 비영리민간단체인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온라인카페 자료에 의하면, 2015년 현재, 일본 전역에 소재하는 조선학교는 64개교이며, 이때의 1개교는 ‘홋카이도 조선초중고급학교’처럼 한 학교에 초중고급학교 과정이 모두 포괄되어 있는 학교도 있고, 조선초급학교나 조선고급학교처럼 하나의 학제로 구성된 학교도 있다. 각 지역의 초급학교에는 유치반이 함께 운영되는 곳도 있으며, 2015년 현재, 35개의 유치반이 운영되고 있다.

(<http://cafe.daum.net/mongdanglove/UA2F/6> 참조)

창작언어인 일본어의 틈새에서 작금의 이중언어 현실을 어떻게 타개해나갈 것인가에 대해 다양한 자기고백과 변호의 논리들을 설파해왔다. 김달수를 위시하여 일본을 향해 발신하는 일본어 글쓰기의 당위성을 논한 재일조선인 문학자도 있었으며, 어당(魚塘)과 같이 “조선어로 조선문화를 쌓아올려 가는 것은 양보할 수 없는 대원칙”⁴⁾임을 천명한 문학자도 있었다. 실질적으로 대다수 재일조선인 독자들의 조선어 독해 능력이 거의 전무한 언어 환경 안에서 ‘조선어’ 문학의 창작과 수용은 작가에게나 독자에게 단시일에 순조롭게 대체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재일조선인 문학자 당사자들의 해방 직후 조선어 실력에 대한 회의와 좌절, 60년대 이후를 거쳐 조직 내부의 이념적 경직성에 대한 반발과 갈등 속에서 일본어 창작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던 문단 현실 등은 해방 직후부터 현재까지 이어져온 재일조선인 문학 내부의 언어적 트라우마이자, 의식적인 일본어 창작의 근거로 작동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어 우세라는 괴이한 사실”⁵⁾과 일본의 동화정책이 강제된 현실 속에서도 끊임없는 자기단련과 조선어 교육을 통해 조선어로 쓰인 재일조선인 문학이 산출되어왔으며, 현재까지도 그 명맥은 면면히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조선어 창작은 불가피하게 혹은 자연스럽게 ‘조선학교’의 자장 안에서 산출된 문학⁶⁾이며, 조선학교의 발생과 성장과정을 주조한 당대의 재일조선인 문학자의 민족교육에의 헌신과 투쟁에서 비롯된 산물이다. 허남기, 리은직, 강순, 박원준, 남시우 등의 조선어 문학은 해방 이후 재일조선

4) 송혜원, 『‘재일조선인 문학사’를 위하여-소리 없는 목소리의 폴리포니』, 소명출판, 2019, 179쪽.

5) 송혜원, 위의 책, 178쪽.

6) 2004년 당시 재일본조선문화예술가동맹(문예동) 문화부장인 강태성은 “광복 이후 수 편 이상 소설을 쓴 사람들을 꼽아보면 김민, 리은직, 박원준, 박영일, 박종상, 소영호, 량우직, 박관범, 서상각, 김춘지, 김송이, 리량호, 남상혁, 박순영, 강태성, 김금녀, 리상민, 고을룡 등으로 스물 남짓한 사람밖에 안 된다. 그 중 1세대작가는 김민, 류벽, 윤광영, 리은직, 박원준, 박영일, 박종상, 소영호, 량우직, 박관범, 서상각, 리량호 등 절반을 차지하고 나머지 2세대, 3세대들은 모두 조선대학교, 조선고급학교에서 배운 사람들이다.(중략) 이와 같이 소설창작과 민족교육은 뿔레야 뿔 수 없는 관계에 있으며 소설은 조선고급학교, 대학 등 민족교육을 모태로 발생하고 발전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강태성, 「재일조선인 조선어 소설문학」, 『재일조선인 조선어문학의 현황과 과제』, 2004년도 제2회 조선문화연구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4. 12, 1쪽.)

인 조선어 문학의 토대가 되는 귀중한 자산이며, 이처럼 일본어와 조선어의 낙차와 갈등 속에서 부단히 조선어 창작을 병행해간 재일조선인 문학자들은 또한 실천적 민족교육자라는 점에서, 재일조선인 민족교육과 조선어 창작은 불가분의 순환구조 속에 놓여있다고 하겠다. 민족학교를 중심으로 한 조선어 교육 및 창작의 재생산 과정은 1955년 총련 결성을 계기로 획기적인 도약과 조직적 성장기를 맞이하게 된다. 1959년 6월 결성된 ‘재일본조선 문학예술가동맹’(문예동)이 기관지 『문학예술』을 바탕으로 총련의 문학예술정책과 발맞추어 재일조선인 민족문화·문학예술의 지평을 넓혀가는 최전선에 자리잡음으로써 이후 지속적인 조선어 창작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총련의 결성은 재일조선인 조선어 문학뿐 아니라, 이의 물리적 토대인 민족교육의 발전에도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쳤다. 김덕룡, 오영호, 김상호 등의 재일조선인 민족교육의 시기구분⁷⁾에서도 알 수 있듯이, 총련의 결성과 조직 정비는 재일조선인 운동과 민족교육의 전환에 있어서 새로운 분기점이 된다. 북한의 해외공민으로서의 자각과 직접적인 연계를 기반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민족교육의 사상적, 물질적 기반이 마련되고 교육체제의 개편이 이루어지며, ‘조선학교’가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고 민족적 정체성을 구현, 표출하기 시작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총련 결성의 의의와 변별점에

7) 김덕룡은 1945년부터 1972년까지의 약 25년간의 민족교육의 역사를 재일조선인 민족조직과의 연계에 따라 (1)해방 후 민족교육의 출발과 재일조선인연맹(조련)에 의한 민족교육(1945.8-1949.8) (2)조선학교 폐쇄와 동화교육의 강제에 맞선 재일본조선통일민주전선(민전) 주도의 민족교육(1949.10-1955.4) (3)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의 결성과 민족교육의 발전기(1955.5-1972)로 구분하며(김덕룡, 『바람의 추억 : 재일조선인1세가 창조한 민족교육의 역사(1945-1972)』, 선인, 2009), 오영호는 해방에서 1960년대까지의 시기를 교육의 성격에 따라 (1)제1기-독자기(1945년-1954년), (2)제2기-‘이식’형 국민교육기(1955년-1962년), (3)제3기-‘자이니치(在日)’형 국민교육기(1963년-1969년)로 구분한다(오영호, 「탈식민화 과정으로서의 조선학교 역사-해방 이후 1960년대까지를 중심으로-」, 배지원·조경희 엮음, 『재일조선인과 조선학교-투쟁의 시간, 삶의 공간』, 선인, 2017), 또한 김상호는 조국 및 정주지에 대한 지향성에 따라 (1)1차 귀국(출신지)지향형 민족교육(1945.8-1955.5) (2)2차 귀국(북한)지향형 공민화교육(1955.5-1970년대 중반) (3)영주지향형 공민화교육(1970년대 중반-현재)으로 구분한다(김상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의 ‘민족교육’ 연구-‘영주·범민족교육’, ‘다민족·공생교육’으로의 변화를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주목하면서, 민족교육과 연계한 조선어 창작의 결실이자 총련 결성 직후의 민족교육의 면모를 직접적으로 형상화한 두 장편소설을 증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다룬 작품은 1955년 총련 결성 직후의 조선학교를 배경으로 민족교육의 현실을 톺아내려 그려낸 박종상의 『봄비』(문학예술종합출판사, 2001)와 량우직의 『서곡』(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5)이다. 총련의 결성은 북한과 직결된 사상적, 조직적 재정비 및 방향전환을 촉진하는바, 우선 북한과 연계한 총련의 민족교육 정책을 살펴본 후 이를 문학적으로 재현하고 있는 두 작품을 통해 총련과 민족교육, 재일조선인 조선어 문학의 상관성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II. 총련 결성과 민족교육의 확장

1955년 5월 24-26일, 민전은 제6차 임시대회를 열어 민전을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총련의 결성을 선언함으로써 “재일조선인 운동의 노선 전환”을 천명한다.⁸⁾ 지금까지 일본공산당 등 일본 진보세력과 연대하여 일본 혁명 운동의 일환으로 재일조선인 운동을 규정함으로써 일정한 오류를 내정했던 민전은, 1954년 8월 및 1955년 2월에 발표된 북한 외상 남일의 성명 등을 기폭제로 하여 총련으로 전환할 계기를 마련한다. 남일 성명은 재일조선인들이 ‘북한의 해외공민’으로서 일본 안에서 정당한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으며 이러한 권리를 옹호하는 것이 북한의 정책임을 강조하면서, 일본 정부에 대해 민주주의적인 민족교육 등 일체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내정불간섭 원칙에 따라 재일조선인 운동이 조국과 연계한 독자적인 방향성을 가져야 함을 시사했다.⁹⁾ 이러한 북한의 입장 표명과 민전 내부의 논의에 따라 민전 해체와 동시에 1955년 5월 25일 총련이 결성되었다. 총련은 결성대회에서 재일동포의 공화국 주위로의 결집, 조국의 평화통일, 재일동포의 민주적·민족적 권리 옹호, 민족교육 실시, 조일친선과 세계평화에의 공헌 등을 강령으로 채택했다.¹⁰⁾ 특히 강령 제4항에서는 “우리는 재

8) 오영호, 앞의 글, 36쪽.

9) 오자와 유사쿠, 『재일조선인 교육의 역사』, 이충호 역, 혜안, 1999, 362쪽 참조.

일조선동포 자녀에게 모국의 말과 문자로 민주민족교육을 실시하고 일반 성인 속에 남아있는 식민지노예사상과 봉건적 유습을 타파하고 문맹을 퇴치하며 민족문화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고 조직의 교육강령을 명문화하였다.¹¹⁾ 또한 이러한 교육강령의 구체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교육방침을 결정한다. 즉 조선공민의 정당한 권리인 교육권을 지켜나갈 것,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수활동을 개선, 강화하여 아동 학생이 기초학력을 높이는 데 모든 힘을 다할 것, 학교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건설이 가능한 지역부터 건설사업을 촉진하고 그 조건을 배양시켜 나갈 것, 이미 설립된 주학교는 학교 인가의 수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학교시설을 정비하여 일본학교에 재학 중인 조선인자제를 적극적으로 조선학교에 편입시킬 것, 교육의 지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총련중앙과 지방기관에 교육전문부서를 설치하고 새로운 학교규정의 실시와 교과서 편찬 및 간행, 교원양성과 재교육사업 등을 통일적으로 추진해나갈 것, 종래의 조선사범전문학교를 대학과정인 이수 가능한 고등교육기관으로 발전시켜 운동에 필요한 민족간부를 자력으로 양성할 것 등¹²⁾이다.

총련의 결성으로 말미암아 조국의 해외공민을 양성하는 귀중한 터전이자 민주주의적 민족교육의 산실로서 조선학교에 대한 재일조선인들의 관심과 지원이 증폭되면서, 그동안 일본당국의 탄압과 폐쇄정책으로 인해 재정난과 시설·교원 부족 등의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던 조선학교들은 점차 정비되기 시작한다. 무엇보다 1950년대 후반 이루어진 조선대학교의 창설과 그에 의한 민주주의적 민족교육체계의 완성, 북한의 교육원조비 송금, 북한으로의 귀국사업 실현은 민족교육의 발전에 획기적인 영향력을 끼쳤다.¹³⁾ 조선학교가 각종학교라는 이유로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일본대학으로의 진학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재일조선인들의 교육의 기회균등의 원칙과 학문연구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그리고 “140여 조선학교의 교원을 자력으로

10)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국제고려학회 일본지부 『재일코리아사전』 편찬위원회 편, 『재일코리아사전』, 정희선·김인덕·신유원 역, 선인, 2012, 349쪽.

11) 김덕룡, 앞의 책, 208-209쪽.

12) 김덕룡, 위의 책, 209-211쪽 참조.

13) 오자와 유사쿠, 앞의 책, 369쪽 참조.

양성해나가기 위해”¹⁴⁾ 총련에서는 1956년 4월 10일, 고등교육기관인 조선 대학교를 창립한다. 이를 통해 초급학교에서 대학에 이르는 전일적인 재일 조선인 민족교육체계가 완성된다. 조선대학교의 준공을 비롯한 민족교육사업의 물적 토대가 비약적으로 확충된 계기는 무엇보다 북한에서 보내온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이였다. 1957년 4월 송금된 1억 2000여만 엔(한화 약 12억 원)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164차례, 도합 482억여 엔(한화 약 4820억 원)¹⁵⁾에 이르는 북한의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은 “민족교육의 생명수”¹⁶⁾로서 운영난을 겪는 조선학교의 절대적인 재원으로 기능했으며, 이를 통해 조선학교의 경제적 기반이 안정화되면서 민족교육의 조직적 발전과 확장이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1959년 12월부터 시작된 북한으로의 귀국운동은 재일조선인 청소년들의 마음속에 조국의 모습을 정착시키고, 당시 일본인학교에 다니던 조선인 학생들에게 민족교육을 받고자 하는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유력한 원동력이 되었다.¹⁷⁾ 이와 같이 총련 결성과 함께 이루어진 물질적·사상적 토대의 확보와 교육환경의 비약적인 발전은 학교 수, 학생 수를 총련 결성 이전보다 각각 배 이상으로 증가시키면서 양적·질적으로 변화, 확장된 재일조선인 민족교육의 양양기를 가져온다. 총련 결성 직후 민족교육 안에서 일어난 전면적인 변화와 재건의 양상들은 여러 재일조선인 문학작품 안에서 주요 소재로 다뤄지고 있는데, 그중 장편소설의 양식으로 당시 민족교육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형상화해내고 있는 작품으로 박종상의 『봄비』와 량우직의 『서곡』을 주목할 수 있다.¹⁸⁾

14) 오자와 유사쿠, 위의 책, 369-370쪽 참조.

15) 오규상, 「전환된 동포운동, 총련 결성과 초기의 활동[기획연재] 총련과 그 역사를 알아보다(2)」, 『현장언론 민플러스』, 2018. 9. 4.

16) 오영호, 앞의 글, 38쪽.

17) 오자와 유사쿠, 앞의 책, 369쪽.

18) 문예동 기관지 『문학예술』 2009년 6·7월호(110호)에 실린 「재일조선문학(작품, 평론)집 목록」과 허명숙의 연구(「재일동포 한국어 장편소설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0권 2-1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6)에 의하면, 2000년대까지 간행된 재일조선인 조선어 장편소설은 량우직의 『비바람 속에서』(문예출판사, 1991), 『서곡』(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5), 『봄잔디』(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9), 『지진』(문학예술출판사, 2003), 김춘지의 『봄바람』(문예종합출판사, 2000), 박종상의 『봄비』(문예종합출판사, 2001), 리은직의 『한 동포상공인에 대한 이야기』(문학예술출판사,

Ⅲ. 『봄비』와 『서곡』에 나타난 총련 결성 시기 ‘조선학교’ 재현양상

박종상의 『봄비』와 량우직의 『서곡』은 1955년 총련 결성 직후의 각 지역 단위 조선학교의 현황과 변모·발전과정을 시련과 극복의 극적 서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보여준다. ‘가와하라조선초급학교’와 ‘고베중·고급학교’를 배경으로, 재일조선인 민족교육자의 헌신적인 노력과 지역동포들의 조직적인 협력으로 조선학교가 재건되어가는 과정을 감동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봄비』와 『서곡』은, 제목에서도 드러나듯이 총련을 중심으로 새롭게 민족교육의 기틀을 잡아가고 체계적으로 확장해나간 시기의 조선학교의 현장을 집중적으로 그리고 있다. 두 작품 모두 새로운 학교 교사(校舍) 건설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 사건들을 소설의 골자로 하고 있으며, 지역동포들과 민족교원들이 방해자들의 갖은 모략책동 속에서도 끝내 좌절하지 않고 불굴의 노력으로 학교건설사업의 꿈을 실현한다는 서사구조를 갖고 있다. 물론 이 두 조선학교의 이야기에는 북한의 교육원조비라는 조국의 ‘따사로운 손길’이 매서운 겨울바람을 잠재우고 만물의 소생을 알리는 ‘봄비’로, 또는 새로운 민족교육 건설의 ‘서곡’을 알리는 머릿들로 제시되어 있다.

『봄비』의 작가인 박종상은 “어릴 때 일본에 들어와서 광복 후 조선학교에서 배워 국문소설을 쓰게 된” 재일조선인 1세대 작가¹⁹⁾로, 도쿄조선고급학교 재학 당시, 교내 문학동인지 『수림』에 첫 단편인 「불꽃」, 「불량인」 등을 발표했으며,²⁰⁾ 조선대학교 문학부장을 지냈다. 단편소설집 『동포』(1980), 『원앙유정』(1989), 장편소설 『봄비』(2001)²¹⁾ 등을 상재했다. 최근까지도 문예동 소속 작가로서 조선어 창작에 대한 당위성과 실천적 지침들을 설파하며²²⁾ 재일조선인 조선어 문학의 확장에 기여해왔다. 장편소설 『봄비』는

2002), 총 7권이다.

19) 강태성, 앞의 글, 1쪽.

20) 강태성, 위의 글, 2쪽 참조.

21) 『봄비』는 2001년 단행본으로 출간되기 전, 1979년 『문학예술』 68-70호에 연재된 작품이다.(허명숙, 앞의 논문, 7쪽)

22) 문예동 기관지 『겨레문학』 제3호(2000, 겨울)에는 「조선글로 소설을 쓰는 의미」

“1950년대 재일동포사회를 배경으로 민족교육문제를 다룬 박종상의 첫 장편”으로, “1950년대 재일동포민족교육의 위기를 이겨내던 시기 그 앞장에서 투쟁한 청년교육자의 전형을 뚜렷이 부각”²³⁾했다는 평가를 받는 장편소설이다. 량우직²⁴⁾ 또한 1942년 일본으로 건너온 1세대로 1948년부터 20년간 조선학교에서 교편을 잡았으며, 이후 총련 조직 안에서 문예동 지부위원장, 고문 등을 역임했다. 1990년 들어 장편소설 『비바람 속에서』(1991), 『서곡』(1995), 『봄잔디』(1999)를 통해 자신이 몸소 경험한 민족교육투쟁운동을 소설화하면서, 해방 직후부터 조련 시기의 한신교육투쟁, 민전 시기, 그리고 총련 결성 이후의 민족교육과 조직운동, 재일조선인의 삶과 정체성 구현의 문제 등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이 중 『서곡』은 총련 결성 직후인 1955년 5월부터 4년여의 기간 동안 ‘고베중고급학교’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학교 건설사업과 재일조선인 간의 부단한 연대와 화합의 실천적 도정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두 작품에는 학교건설사업이라는 동일한 주제 아래, 민족교원의 지칠 줄 모르는 헌신과 도전, 학생들에 대한 사랑과 실천적 교육활동이 다각적으로

라는 박종상의 글이 실려 있는데, 거기에서 박종상은 “민족애국주의교양에서 가장 큰 몫을 담당했어야 할 민족문화가 자기의 응당한 지위를 보장 받지 못하고 임무와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반성하면서, “조선민족성, 민족자주정신을 되살리기 위하여 아무래도 조선글로 소설을 써야 하며 우수한 작품을 써 내어야 할 문제가 재일조선인 운동의 초미의 문제로 절실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박종상, 위의 글, 1-3쪽 참조)

23) 강태성, 앞의 글, 5쪽 참조.

24) 량우직은 제주도 한림읍 빈농가의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1942년 일본으로 건너와 공부하다가 해방을 맞았다. 재일조선인의 귀국실현의 길이 막혀 동포들이 일본에 정착하게 되면서 민족교육의 열망을 품고 1948년부터 20년간 일본 효고현 고베조선중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는다. 1968년부터 13년간 문예동 효고지부위원장, 1981년부터 15년 동안 총련 오사카지부 문화부장사업을 하다가 1995년부터 1999년까지 문예동 중앙상임위원회 고문직으로 일했다. 1960- 1985년까지의 기간에 『태양의 품』, 『거세찬 흐름』, 『복수』, 『망할 놈들』 외 14편의 단편소설들과 수필, 단상, 평론 등 35편을 창작하였다. 재일조선공민 1세인 그는 재일조선인역사를 후대에게 전할 사명감을 자각하고 90년 들어서는 장편소설 창작에 매진했다. (량우직, 『봄잔디』,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0, 편집후기 참조; 허명숙, 「재일동포작가 량우직의 장편소설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14, 한중인문학회, 2005, 464쪽에서 재인용.)

형상화되어 있으며, 민단을 주축으로 한 적대세력의 끊임없는 방해공작으로, 계획한 교육사업들이 번번이 수포로 돌아가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조선학교를 둘러싼 교원과 지역동포들의 조직적인 단합, 그리고 북한 조국으로부터 전달된 교육원조비로 말미암아 학교건설사업의 당면과제가 마침내 성취되는 희망의 서사가 나란히 전개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두 소설에 나타나는 공통된 주제의식과 인물의 전형성, 사건의 추이 등을 중점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총련 결성과 민족교육의 상관성, 당대를 다룬 ‘조선학교’ 주제 작품의 일관된 서사구조와 성격창조의 과정, 민족교육을 둘러싼 재일조선인의 고난과 투쟁, 극복의 역사를 전경화해보고자 한다.

1. 교사(校舍)건설 사업을 위한 조직적 단합과 상공인 연대

『봄비』는 총련 결성 다음해인 1956년 겨울부터 1957년 봄까지의 시기 동안 ‘가와하라조선초급학교’의 교원들과 지역동포들이 합심하여 민족교육의 성장을 이끌어나가는 강고한 헌신과 학교건설사업의 과정을 형상화하고 있다. 소설은 아침 등교시간, 민족교원인 ‘김춘석’(이하 춘석)이 아이들과 함께 전철을 타고 학교에 가는 장면에서부터 시작한다. 학교 근방에서 일본 아이들이 “조선학교는 따라지학교! 바람 불면 날아간다. 거리지학교! 조선인은 조선에 돌아가라!”²⁵⁾고 놀리는 소리에 조선학교 아이들이 달려들고 이에 개입한 일본순사를 말리려다 춘석이 외국인등록증을 빌미로 일본경찰서에 잡혀가게 된다. 가와하라조선초급학교는 “본래 조선에서 끌려와 혹사당한 동포녀성들의 피눈물이 얼룩진 섬유재생공장 녀직공들의 기숙사였던 곳을 광복 후 조련조직이 입수하여 교사로 써온”(82) 곳으로, “집채가 통채로 기울어지려는 것을 여러 개의 통나무기둥으로 번치고 벽채의 판자가 썩고 떨어져나가고 한 데를 판자와 함석조각으로 덧대어 보기 흉한”(82), 가난하고 열악한 조선학교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곳이다. 경찰에 구속된 사건을 계기로 춘석은 조선학교 아이들에게 ‘정규적인 학교 교사(校舍)를 번듯하게 지어주어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되고 이러한 포부는 마침내 총련

25) 박종상, 『봄비』,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2001, 11쪽. 이하 작품인용은 본문 안에 쪽수만 표시함.

조직의 결의에 힘입어 구체적인 형태를 띠게 된다.

결성 이후 총련은 재일조선동포들의 념원과 지향을 반영하여 급격히 발전하였으며 모든 사업이 상승일로의 추세에 오르고 있었다.(중략) 지부에서는 사건의 이러한 배경과 본질을 분석하고 이것을 계기로 조직을 더욱 강화하고 교육사업을 비롯한 애국사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대책을 세웠다. [...] 동포들의 민족자주의식을 높여 주고 민족단합의 분위기를 더욱 조성하여 나가며 당면 신학년도를 지향하여 더 많은 조선학생들을 조선학교에 받아들이기 위해서와 가와하라조선초급학교의 교사개축 사업을 위한 전 동포적인 운동을 벌려 나가도록 하였다. 학교건설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건설위원회를 조직하는 것과 정치선전사업을 짜고들어 동포들의 열성을 불러 일으켜 기금을 모집하는 사업이었다.(130-131쪽)

민주주의적 민족교육의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서 ‘학교건설이 가능한 지역부터 건설사업을 촉진하고 그 조건을 배양시켜 나갈 것’은 총련의 교육방침 중 하나였다. 뜻을 가진 한 민족교원의 염원과 더불어 총련의 조직적인 결정을 기반으로 가와하라조선초급학교의 학교건설사업은 본격적인 착수작업에 들어간다. 가난한 동포들이 밀집한 지역에서 각 가정의 기장사업만으로 학교건설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각 지부의 동포들과 학부모, 학생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건설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저금통을 만들어 ‘하루 10원 예금운동’- 꼬마건설기금운동을 전개하는 조선학교 학생들, 고물장사와 비누, 콩나물장사를 하여 기금을 보태는 남녀 분회원 등 학교를 둘러싼 각 지역의 동포들은 서로 합심하여 학교건설사업에 열성을 보탠다. 또한 춘석의 제안으로 돼지새끼를 배내기하기로 결정하고 온 분회와 청년들이 나서 돼지사로 마련에 동참한다. 그러나 이러한 학교건설사업은 단순히 기금을 모으는 차원을 넘어 총련 조직의 존립과 강화에 직결되는 조직적 차원의 문제로 제기된다.

이 교사건설문제가 지금 기금문제로 걸려 있지만 단순한 돈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일본에서 총련의 애국사업을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려는 세력과 기어이 방해하여 재일동포들을 지난 날의 노예의 처지로 끌어 당기려는 세력간의 투쟁이었다.(212)

춘석은 돌아 오면서 학교건설문제를 둘러 싸고 총련조직에 대한 반동들의 파괴책동에 예상보다 훨씬 주도면밀한 계획밑에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 민족교육사업이란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학교나 꾸려 놓고 학생이나 모아 들여 글공부나 시키는 그런 단순한 사업이 아니었다. 적어도 춘석이 생각에는 학생들, 동포들을 누구의 편으로 모으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였다.(중략) ('천불이'가) 영육이를 일본학교로 돌리려는거며 규영이를 '재류민단'에 넣으려는거며 돼지죽을 가로채기 위해 선손을 쓰는거며 하는것들이 다 자기들이 하려는 교육사업을 방해하는 짓들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결국 총련의 지향과 배치되는 것들이었다.(235-236쪽)

‘북한의 해외공민’이라는 자각 아래 북한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 지향성을 담보한 총련은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총련의 조직적 근간을 세워내는 물리적 토대로서 민족교육사업을 당대의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설정하고, 조선학교를 재건하는 일에 매진하였다. 남북의 분단 이후 더욱 확고한 이념적, 국가적 지향성을 갖게 된 총련의 입장에서 남한을 지지하는 ‘민단(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과의 대립은 불가피한 것이었으며 따라서 총련 사업을 저해하는 ‘민단’의 모략과 방해공작은 문예동 작가의 소설 안에서 갈등과 위기를 주조하는 전형적 구성요소가 된다. 전 지역동포들의 협력으로 새 교사신축의 꿈을 착실히 키워가고 있던 춘석네들은 돼지가 독살되는 사건을 겪으면서 좌절에 빠진다. 우여곡절 끝에 교육회 부회장 정학구의 주선으로 지역 상공인 리남주의 후원을 받아 가와하라조선초급학교는 새 교사기공식까지 성대하게 치르지만, 또 다시 민단간부인 ‘천불이’의 모략으로 상량식 전날 새 교사를 지을 목재가 모두 불에 타버림으로써 건설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만다. 바로 이때 북한에서 1차 교육원조비가 전달되고 전 지역 동포들과 교원들은 조국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에 감복하며 다시금 교사건설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처럼 박종상의 『봄비』에는 총련이라는 새로운 민족조직의 돌레 안에 각 지역의 동포들, 분회조직, 민족교원, 상공인들이 연대하고 협력하여 새로운 민족교육의 전기를 마련해가는 과정이, 학교건설사업 완수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촘촘하게 형상화되어 있다. 총련 결성 이후 교사건설과 학생인입의 중요성을 한층 깨달아가며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내오는 과정, 민단과 일본정부를 중심으로 한 방해책동과 갈등

양상, 그리고 북한의 원조와 주체의 각성으로 이어지는 희망적인 마무리는 이 당시 재일조선인 사회 안에서 민족교육을 중심으로 한 총련의 위상과 역할을 극적으로 재현하는 전형적 서술방식이라 할 수 있다.

량우직의 『서곡』 또한 학교건설사업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봄비』와 유사한 전개방식을 보여준다. 『서곡』은 ‘고베중고급학교’ 교장 박동환이 1955년 5월 25일에 열린 총련 결성대회를 마치고 고베로 돌아가는, 열차 안 장면에서부터 시작한다. 박동환은 고베의 조선학교에서 한경훈, 최주석 등의 선진 활동가들과 함께 해방 직후부터 민족교육에 투신하면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박동환은 “총련조직이야말로 우리에게 더없이 귀중하고 미더운 길잡이인 동시에 생사운명을 같이할 벗”²⁶⁾이므로 ‘어려운 일이 제기될 때마다 총련조직을 믿고, 조직에 의거하면 어떤 어려운 난관이 생긴다 해도 뚫고 나갈 방도가 생겨날 것’이라는 총련 중앙간부 한경훈의 당부를 마음에 안고 학교로 돌아온다. 앞날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떠올리던 중 박동환은 우선적으로 학교건설사업을 생각해낸다.

처음 박동환의 머리에 떠오른 것은 새 교사를 한 채 건설하는 것이었다. 총련은 민족교육을 경원했던 과거와는 달리 민주주의민족교육실시를 기본과업의 하나로 중시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간판을 걸고있던 조선학교들이 자주적인 학교로 되어 정연한 민족교육체계에 망라될것이고 일본 학교에 다니던 조선아이들이 모두 우리 학교로 달려올 것이다. 효고현지역에서만도 새로 편입될 학생들이 수백명이 될것이니 당장 교실이 모자라고 운동장이 비좁을 것이다. 그러니 새 교사를 건설하고 새 운동장을 닦는 것은 총련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한시도 미룰 수 없는 문제였다.(8쪽)

그러나 이러한 학교건설사업에 대한 구상은 박동환 교장이 고베에 돌아온 직후 벌어진 괴한들의 학교습격사건을 시작으로 여러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민단 부단장인 성익조의 계약으로 민족교원 임경원 등이 가담하여 이루어진 학교습격사건은 총련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고 조선학교의 새 교사

26) 량우직, 『서곡』,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5, 6쪽. 이하 작품 인용은 본문 안에 쪽수만 표시함.

건설사업을 무력화시키려는 민단의 방해공작의 일환으로, 성익조와 그의 애인 홍애련 등은 일본경찰 및 관청, 언론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조선 학교를 와해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넉 달분이나 밀린 교원들의 임금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학교건설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은 요원했으나, 그럼에도 총련본부와 교육회, 학교당국은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결정한다. 따라서 소설의 큰 줄기는 학교건설기금과 교원임금이라는 재정적 기반을 확보하는 문제와 이에 따른 고난과 성취의 과정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먼저 교장 박동환은 동포상공인 리성문을 찾아가 학교건설 위원장 자리를 제안한다. 그러나 리성문은 “‘총련’이요, ‘민단’이요 하는 편싸움과 같은 대결리념보다는 내 나라, 내 민족이라는 숭고한 실체를 위한 범애국주의를 숭상”(111쪽)한다는 명목 하에 위원장 자리를 거절한다. 설상가상으로 월사금과 찬조금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교원 인건비조차 거의 걷히지 않자 박동환은 교원들과 함께 시역소에서 일일노동을 시작하기에 이른다. 상공인들과 학부모, 동포들의 미온적인 태도가 민전 시기부터 이어져온 조직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은 박동환 등은 새로운 조직으로서 총련의 위상과 가치를 알리기 위해 효고현 전체 조선학교가 합동으로 준비한 성대한 가을운동회를 개최함으로써 전 지역의 동포들이 한 자리에 모여 민족의 문화와 총련 조직의 결속력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밀렸던 월사금과 학부모 회비, 찬조금 등이 일시에 걷히고, 총련의 도움으로 파산의 위기에서 벗어난 상공인 로원호의 추동과 박동환의 끊임없는 권고로 마침내 리성문이 동포조직의 구심점으로서 총련을 인정하고 건설위원장을 맡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민족교육의 발전이 총련에 대한 신뢰 및 지지와 직결되며 총련의 조직 강화가 재일조선인 민족교육의 가장 중요한 토대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가을운동회의 성공과 더불어, 오무라수용소로 끌려가 남한으로 강제송환 당할 위험에 처한 교원 임경원을 끝까지 구출해낸 총련에 대해 동포들의 민심이 쏠리면서 ‘민단’ 상공인들까지 조선학교에 찬조금을 지원하는 등 학교 건설사업과 학교운영 등이 정상궤도에 올라가려는 찰나 다시 ‘민단’에 의한 돼지우리방화사건이 일어난다. 또한 학교건설장의 정지사업을 시작하는 날, ‘우익깡패들’이 정치회사사장을 감금하고 불도저를 막아서며 조선학교 건설 반대 시위를 벌이고 그 와중에 임경원이 깡패의 칼에 맞아 부상을 입는

다. 설상가상으로 건설위원장인 리성문의 사업이 민단의 방해로 파산의 위기에 놓이게 됨으로써 학교건설사업의 재원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나 모든 것이 무너져 절망에 빠진 순간 조국으로부터 교육원조비가 도착하고 마침내 완공된 고베중고급학교의 새 교사에 졸업생 출신 새 교원이 부임하며 소설은 마무리된다.

이와 같이 『봄비』와 『서곡』에서는 총련 결성과 함께 민주주의적 민족교육의 가장 중요한 기반 마련을 위한 학교건설사업이 제기되고, 적대세력의 방해공작과 여러 물리적, 사상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역동포들의 지지와 협력, 민족교원들의 열정적 의지와 헌신, 상공인들의 연대 등을 바탕으로 학교건설사업의 기틀이 마련되며, 마침내 조국에서의 교육원조비 전달로 인해 이러한 과업이 현실화되는 일련의 극복과 성취의 서사가 역동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2. ‘숨은 영웅’으로서의 재일조선인 민족교원의 두 형상

20대 중반의 젊은 교원인 춘석의 시점으로 전개되는 『봄비』의 서사 안에는, 그의 과거와 현재를 둘러싼 다양한 개인적 사건들이 재일조선인의 사회역사적 배경 및 교육자적 경험과 맞물리면서 성찰적으로 통합되어가는 성장의 드라마가 자리하며, 이를 통해 춘석이 민족교육사업의 중추적인 인물로 서나가는 점진적인 변모과정이 그려지고 있다. 춘석은 6년 전인 1950년 11월 말, 도쿄에서 조선중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가와하라조선초급학교의 교원으로 배치되어 온다. 1948년 ‘한신교육투쟁’을 위시한 전국적인 교육투쟁에도 불구하고 1949년 10월 ‘조선학교폐쇄령’에 의해 각지의 조선학교들이 파괴되고 문을 닫게 되자, “이러한 민주주의적 민족교육의 위기를 구원하기 위하여 김춘석이네들, 도쿄조선중고등학교 고등부 졸업반학생들이 탄압을 이겨내며 지켜가고 있는 일본 각지 조선학교들에 배치된 것이었다.”(23-24) 당시 효고현 가와하라에 배치되어 교원생활을 시작한 춘석은 6년의 세월을 하루같이 민족교육에 매진하며 자기희생적인 교육열을 불태운다.

학교건설사업에 열정적으로 매진하거나 조선인 학생 하나하나에 정성을 쏟는 춘석의 태도는 조선학교를 열등하다고 은연중 비하하는 교장 구자룡

이나 ‘합리주의자’로서 현실추수적인 견해를 보이는 교무주임 은상섭, 그리고 열악한 조선학교의 현실에 좌절하고 결국 교원을 그만 두고 도쿄로 돌아간 친구 윤용악과 대조되면서, 진정한 민족교육자로서 춘석의 자질-민족교육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애정, 불가능해 보이는 교육사업을 불굴의 의지로 타개해가는 도전정신, 아이들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과 돌봄 등-을 부각시킨다.

도쿄 등지의 대도시와는 달리, 태평양전쟁말기 군수공장에 강제징용되어 끌려온 동포들의 ‘함바’가 모여있는 가와하라시는 품팔이노동이나 돼지사육, 밀주장사 등으로 근근이 살아가는 가난한 재일조선인들이 밀집한 지역으로, 춘석 또한 학교속직실이나 동포들의 집을 전전하며 쪽잠을 자고 학부형동포들의 집을 번갈아 찾아다니며 하루 한두 끼의 돌림밥을 얻어먹으면서 생활을 이어간다. 홀어머니와 애인 현옥희를 도쿄에 두고 떠난 춘석은 개인적인 안위와 욕망에 휘둘리기보다는 일본 안에서 올바른 민족교육을 실현하겠다는 순수한 의지로 자신 앞의 고난을 하나씩 헤쳐 나간다. 그러나 소설 안에서 춘석은 어떤 내·외면적 흔들림도 없이 교육사업에만 투신하는, 완벽하고 완성된 민족교육자의 전형으로 제시되지 않는다. 젊은이다운 패기와 도전의식은 때론 실패와 불합리한 상황 앞에 좌절과 부끄러움으로 움츠러들기도 하고, 열정만 앞세운 감정이 냉철한 판단을 방해하기도 하며, 혼신을 다한 교육사업이 어그러지거나 모략에 직면할 때, 혹은 실연의 아픔으로 방황할 때는 울분에 휩싸여 일시적으로 학교를 방기하거나 자기연민에 빠지기도 한다. 그러나 춘석이 좌절할 때마다 아버지처럼 격려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며 이끌어주는 민전지부위원장 강성국, 자신을 전적으로 믿으며 생활을 돌봐주는 박노인과 그의 아들인 마쯔바라분회장 박덕삼, 말없이 자신의 교육사업을 뒷받침해주는 동료교원 조동수 등의 지지와 협력, 교훈 등을 기반으로 춘석은 때론 치기어리고 웅졸한 자신의 마음을 다독이고 반성하면서 부단한 자기단련을 통해 한 사람의 인격적인 민족교원으로 한 단계씩 성장해나간다.

이러한 춘석의 질적인 변화와 성장을 추동하는 동력은 총련 결성을 기점으로 비약적으로 발전, 확장되어가는 재일조선인 사회의 조직화와 민족교육에의 자긍심이다. “총련이 결성된 후 총련의 방침에 따라 학교는 우리 후대들을 사회주의 조국의 아들딸로, 올바른 총련애국사업의 계승자로 키우는 교육기관일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민족문화를 선전보급하며 동포들이

단결하는 거점으로 그 역할을 크게 늘 수 있게 되었”(114쪽)고, 이에 따라 춘석은 더 많은 조선학생들을 조선학교에 받아들이기 위한 교사개척사업과 학생인입사업에 열정적으로 매진한다. 춘석은 일본학교에서 모진 따돌림을 당한 후 마음에 상처를 입고 조선학교에 전학 와 친구들에게 빼돌어진 행동을 하는 영육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가르치면서 한 명의 조선아이라도 민족적 정체성을 체득하고 조국과 총련 조직, 동포들의 품에서 밝게 자라나도록 교육해나간다. 또한 가와하라에서 한 시간 가까이 걸리는 궁벽한 촌마을인 히가와정과 소네촌의 아이들을 조선학교에 편입학시키고자 겨울방학 내내 시골마을에 머물며 아이들을 손수 가르치고, 조선학교 아이들과의 교류를 추진하며, 학부형들을 설득하여 마침내 아이들이 일본학교에서 벗어나 조선학교에서 교육받도록 이끈다. 또한 가난한 지역동포들이 조직적으로 단결하여 학교건설기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방도를 제기하고 뒷받침을 하는 등 춘석은 민족교육을 둘러싼 전방위적인 활동을 수행해나간다.

이러한 민족교육에 대한 헌신과 북한의 해외공민으로서의 자각, 총련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확신은 춘석을 마침내 성숙한 교원의 형상을 갖춘 민족교육자로 성장·단련시켜나간다. 민단조직에 의한 방화로 상량식을 앞둔 새 교사의 건설장이 잿더미로 변한 시련 앞에서도 춘석은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학교를 기어이 일떠세워 우리 총련조직에 결속된 동포들의 힘을 보여 주어야”(308쪽) 함을 역설하며 지역동포들을 감동적으로 설복시킴으로써, 총련을 중심으로 재일조선인 사회의 결속과 조직적 민족교육사업에 헌신하는 모범적인 민족교육자의 형상을 주조해내고 있다.

『봄비』가 조선학교의 가장 말단에서 좌충우돌하며 새 시대의 민족교원으로 성장해나가는 춘석을 당대의 전형적인 민족교원의 형상으로 제시하고 있다면, 『서곡』에서는 고베중고급학교의 교장인 박동환을 중심으로, 인간에 대한 진실한 사랑과 믿음을 바탕으로 민족교육과업을 실천해가는 성숙한 민족교원의 형상을 그려내고 있다. 박동환은 어떠한 시련과 배신, 의혹과 좌절 속에서도 구식민지 종주국에서 애국적인 민족교육사업을 함께 해나가는 동지이자 일꾼인 민족교원, 동포상공인, 지역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믿고 일으켜 세워 함께 전진해야 함을 부단히 각성해가는 인물로 그려진다. 『서곡』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은 각 인물들이 자신과 주변사람들에 대해 끊임없이 고뇌하고 성찰하며 마침내 깨달음과 반성

을 얻어 올바른 방향으로 서나가는 성격 창조의 과정이다. 박동환을 비롯하여 고훈학, 리상문, 송수문, 임경원 등 각 인물들은 각각의 처지에서 뼈아픈 자기성찰과 반성, 인간에 대한 사상을 바탕으로 서서히 변화를 이끌어간다. 그 중 학교를 책임진 교장으로서 교원들과 학교건설사업의 주체들에 대해 가장 많은 사상적 투쟁을 해나가는 인물이 박동환이다. 이러한 고뇌는 비단 개인적 품성과 자질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총련과의 사상적 연대 속에서 변화·발전해나가는 자기수련과 성숙의 과정이라는 점에서 객관적 사회 발전과정의 결과물로 볼 수 있다.

숙직실을 비움으로써 학교습격사건을 방조한 교원 고훈학이나 직접적으로 그 사건에 가담한 임경원에 대해, 그들의 성격적 약점을 보완하고 적극적으로 이끌어주지 못한 자신을 질책하며 그들이 변화해나갈 때까지 끝까지 믿음과 애정을 거두지 않는 박동환의 모습은, 그들의 공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교무주임 송수문과 대조되면서 그 태도가 더욱 부각된다. 좌절에 빠져있던 고훈학을 학교건설사업의 일꾼으로 추동해내고, 올바른 사상적 중심을 잡지 못해 혼란에 빠져있는 동포상공인 리상문을 끝까지 믿고 설득하여 학교건설위원장으로 세우며, 배신을 거듭한 임경원을 헌신적인 배려로 감싸는 과정 등은 마침내 원칙주의자이자 편협한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 있던 송수문조차 자기를 반성하고 변화시키는 단계로 이끈다. 돼지 우리방화사건 이후 인간에 대한 회의와 사상적 확신에 대한 흔들림으로 불안해하고 있는 박동환에게 총련간부 한경훈이 던지는 교훈은 총련일꾼이자 민족교육원으로서 갖춰야 할 본연의 자세에 대해 다시금 일깨우는 중요한 대목이다.

“사랑과 믿음은 자기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때에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는 리기적인 물건짝이 아니라 리상이 같고 뜻이 통하는 동지들 사이에 나누는 참뜻에서 깨끗하고 고상하며 정열적인 감정의 분출인 것이요.” [...] “조국에서 멀리 떨어진 이 일본땅에서 애국사업을 하는 우리 일꾼들은 누구보다도 동지들을 믿고 사랑해야 되는거요. 진실한 믿음만이 참된 애국심을 낳는다는 것을 우리의 투쟁경험이 잘 보여주지 않소.”(328쪽)

한경훈의 교훈은 비단 박동환 개인을 향한 질책과 격려를 넘어 당시 민족교육에 앞장섰던 수많은 민족교원, 교육일꾼의 사상적 근거이자 추동력이었다는 점을 상기할 때, 『서곡』은 박동환 등을 중심으로 사상적, 인격적으로 끊임없이 변화·발전해나가며 ‘숨은 영웅’으로서 조선학교 곳곳에서 헌신했던 민족교원의 한 형상을 모범적으로 창조해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봄비』와 『서곡』에서 그려진 김춘석, 박동환 등의 전형적인 민족교원의 형상화는 당시 문예동 작가들의 세계관 및 창작방법과 긴밀히 연동한다는 점에서 그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총련 결성과 함께 북한의 주체문예사상을 공식적인 창작방법론으로 수용²⁷⁾하고 그에 기반한 작품 창작을 추동해 나간 문예동은 직접적인 북한 문단과의 연계 및 주체적 문예사상의 학습과 실천을 병행하면서 이를 작품 안에 구현해내기 시작한다. 1970년대에 이르러 북한은 이전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와 구별되는 주체사실주의 창작방법론²⁸⁾을 주창하며 그 세부항목을 구체화해 간다. “인민대중을 사회력사발전의 주체로, 사회력사적운동을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운동으로 보고 그”²⁹⁾리며, “사건이 아니라 성격을 위주로 하여 형상을 창조”³⁰⁾할 것을 요구하는 주체사실주의 창작방법에 따라 문예동 작가들 역시

27) “총련은 무엇보다도 주체적 문예사상의 가치를 높이 들고 공화국의 문예성과에서 배우며 작가예술인들의 혁명화를 다그칠 데 대하여서와 창작가들이 동포들 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요구를 귀담아듣고 그들을 애국운동과 나라의 평화적 통일 위업으로 힘있게 고무하는 창작활동을 벌릴 데 대하여, 그리고 민족의 일이 갖든 조선말로 창작활동을 하며 사회주의적사실주의창작방법을 고수함으로써 민족적 주체가 확고히 선 창작공연활동을 통하여 동포들을 애국화하며 그들의 민족문화 정서교양에 힘있게 이바지할 데 대하여 제기하였다.”(손지원, 『재일동포국문문학운동에 대하여』, 『재일조선인 조선어문학의 현황과 과제』, 앞의 자료집, 3쪽)

28) 주체의 문예관을 이론화한 김정일의 『주체문학론』에 의하면 “주체사실주의는 주체사상이 밝힌,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에 기초함으로써 사람을 세계의 지배자, 개조자로 내세우고 세계의 모든 변화발전과정을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가장 정확히 그리며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최상의 경지에서 빛나게 형상화할 수 있게 한”(김정일, 『주체문학론』,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101쪽) 창작방법론이다.

29) 김정일, 위의 책, 102쪽.

30) 김정일, 위의 책, 190쪽. 이 책에서는 사건보다 성격을 위주로 내세우기 위해서는 작품에서 성격형상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종자의 요구를 성격을 그리는 데 집중시키며, 작품의 구성을 성격발전의 역사로 되게 엮어나가야 한다고 설명한

민주주의적 민족권리를 옹호하고 민족교육사업에 헌신하는 주체적 인민대중이자 사회역사발전의 주체로서 재일조선인을 형상화하며, 그러한 사회역사적 발전과정을 추동하는 원동력으로서 인물들의 변화·발전해가는 성격창조의 과정을 세밀히 주조하는 데 주력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등학교 졸업반 시절부터 초급학교 교원으로 부임해 교육현장에서의 복잡다단한 투쟁과 좌절, 성취를 겪으면서 점진적으로 학교의 중심인물로 단련되어가는 김춘석을 형상화한 『봄비』는 끊임없는 내면의 고뇌와 성찰을 바탕으로 한층 성장·변모해가는 한 인물의 ‘성격발전의 역사’를 보여준다. 또한 『서곡』에서는 같은 민족상공인이며 민족상공인이라는 신념 하나로 어떠한 불의한 상황에도 끝까지 동료들을 믿고 추동하여, 마침내 그들을 민족교육사업의 새 일꾼으로 일으켜 세우는 박동환 교장을 비롯하여 각 인물들마다의 개성과 사회역사적 환경에 근거한 다각적인 성격창조의 과정이 작품의 주제의식을 관통하는 핵심적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문예동의 기본 창작방침에 충실히 부응하면서 재일조선인 민족교육에의 복무라는 주제의식과 인물형상창조의 전형성을 획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두 작품은 재일조선인 조선어 문학의 괄목할 만한 문학적 성과라 할 수 있다.

IV. 재일조선인 민족교육의 문학적 성취와 전망

재일조선인 조선어 문단에서 장편소설 단행본이 처음으로 간행된 시기는 1990년대 이후이다. 앞서 살펴본 7편의 장편소설의 작가를 비롯하여 해방 이후 활발하게 작품활동을 했던 시인, 작가들 대부분은 수십 년간 재일조선인 민족교육에 헌신했던 이들로, 조선학교 현장에서 교편을 잡고 교육행정을 도맡아하는 가운데, ‘문예동’ 작가로서의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지속적인 조선어 창작을 수행해왔다. 전적으로 작품창작에만 매진할 수 없는 사회역사적 환경으로 인해 80년대까지 주된 창작 장르는 시와 단편소설, 수필 등이었다. 본고에서 살펴본 박종상, 량우직, 그리고 리은직³¹⁾ 등의 재일

다.(김정일, 위의 책, 192-193쪽 참조)

31) 「임무」, 「찾는 마음」, 「한 동포상공인에 대한 이야기」 등의 조선어 소설을 통해

1세대 작가들 또한 해방 이후 지속적으로 단편소설을 발표했으며, 교육 일선에서 물러난 노년기에 이르러 재일조선인 민족교육의 산 증인으로서 본인의 사상과 경험을 집대성한 장편소설을 집필, 간행하였다. 따라서 각각의 작품들에는 해방 이후 현재에 이르는 조선학교의 살아있는 역사가 날것 그대로 숨 쉬고 있으면서 동시에 민족교육 건설이라는 궁극적 지향점을 향해 부단히 걸어온 재일조선인 구성원들의 간고한 삶의 궤적이 날날이 구현되어 있다. 재일조선인 민족교육이 꽃피워온 투쟁과 성취의 역사, 구식민지 종주국 일본, 그리고 분단된 조국의 현실 아래 민족적 정체성을 지키고 발전시켜 나간다는 숭고한 실천의지, 열악한 문단 현실 안에서 평생 ‘조선어 창작’이라는 자기와의 사투를 감행해온 작가적 소명 등이 통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박종상의 『봄비』와 량우직의 『서곡』을 비롯한 재일조선인 조선어 문학은 70여년의 재일조선인 역사와 궤를 같이 하는 기억과 기록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조선어 장편소설이 간행되기 시작한 1990년대는 재일조선인 사회를 둘러싼 동아시아 및 세계정세가 급변하던 시기이다. 80년대 말부터 이루어진 구소련 및 동구권 사회주의국가의 몰락, 94년 김일성주석의 사망, ‘고난의 행군’으로 접철된 북한경제의 위기, 95년 한신아와지대지진(阪神・淡路大地震)으로 인한 대규모의 재일조선인 인명·재산 피해 등은 북한과 연계된 총련 조직과 조선학교에 큰 타격을 주었다. 또한 91년 북일 국교정상화 시도 이후 터져 나온 북한공작원에 의한 일본인 납치·유괴 의혹 사건,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등으로 인해 북한과 일본의 관계가 경색되고 일본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가 발표되면서, 조선학교 여학생의 치마저고리를 칼로 찢는 사건 등 재일조선인과 조선학교 학생들을 향한 차별혐오 행위들이 노골적으로 표면화되기 시작한다. 더불어 88년 서울올림픽 이후 한국사회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민주화 등으로 인해 일본사회 내 한국의 위상이 변모하고, 한일교류 및 재일조선인의 한국방문이 늘어나면서, 조선적(朝鮮籍) 재일조선인의 한국적(韓國籍)으로의 이동 등 남북한과 재일조선인 사회를 둘러싼

민족교육의 중요성과 재일조선인의 헌신적인 노력들을 부각시켰던 리은직은 말년에 이르러 민족교육의 초기 역사를 다룬 방대한 분량의 자전적 이야기를 간행하기도 하였다.(李殷直, 『「在日」民族教育の夜明け 一九四五年一〇月~四八年一〇月』, 東京: 高文研, 2002.; 『「在日」民族教育・苦難の道 一九四八年一〇月~五四年四月』, 東京: 高文研, 2003.)

제반 여건들이 다층화된다.³²⁾ 이와 같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정세 속에서 조선학교의 입지점은 더욱 열악해졌으며, 일본정부의 차별적 교육정책과 북한 지원의 약화, 재일 3, 4세의 의식 변화,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 등은 조선학교의 존폐를 위협하는 복합적 요소로 작용함으로써 총련과 조선학교 내부의 혁신과 변화를 추동한다. 여러 개방적이고 자율적인 교육내용과 형식의 개편을 모색하고 민족적 정체성의 테두리를 확장하여 보다 다층적인 재일조선인의 정체성을 조선학교 내에 포용하는 한편, 해방 이후 조선학교가 민족의 말과 얼, 문화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헌신해온 소중한 역사적 자산을 후대에 전하고, 그 의의를 설파함으로써 작금의 위기를 당당하게 헤쳐 나가고자 하는 노력들이 다각적으로 진행된다.

고령의 재일조선인 1, 2세대 작가들에 의해 이루어진 재일조선인 민족교육 역사의 문학적 형상화가 90년대 이후 집중적으로 표면화된 이면에는, 인적·물적 조건의 마련과 더불어 이러한 총련과 문예동 소속 작가들의 간절한 시대적 극복의지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선학교’를 중심으로 70여 년을 한결같이 이어온 민족교육의 축적과 실천은 재일조선인 사회를 지탱하고 그들의 민족적, 실존적 정체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기반이자 교두보였으며, 현재도 일본 사회의 여러 교육차별정책, 노골적인 차별혐오 선동과 무력행사 등에 맞서 당당히 투쟁할 수 있는 조건과 근거가 된다. 특히 본고에서 다룬 총련 결성 시기의 장편소설에는, ‘총련’이라는 민족단체의 테두리 안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민족교육의 발흥과 토대 마련을 위해 전 지역의 재일조선인과 민족교원들이 궁극적으로 연대하고 헌신하면서, 민족교육의 새로운 역사적 전기를 마련해간 자랑스러운 시대가 재현되어 있는바, 이러한 과거의 성취와 교훈을 발판삼아 용기 있게 현재를 맞서나가라는 세대적 연대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이는 비단 총련과 문예동이라는 범주를 뛰어넘어 재일조선인 사회와 작가들이 그들의 실존과 존엄성을 지켜내기 위해 오랜 시간 고투해온 땀과 눈물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그 문학적 재현의 의미는 세대와 시대를 뛰어넘는 재일조선인 민족교육의 새로운 성취의 전망과 맞닿아 있다고 하겠다.

32) 손지원, 앞의 글, 11쪽: 정진성, 「조총련 조직 연구」, 『국제·지역연구』 14권 4호,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05. 겨울, 54-55쪽 참조.

■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박종상, 『봄비』,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2001.
량우직, 『서곡』,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5.

2. 단행본

- 국제고려학회 일본지부 『재일코리안사전』 편찬위원회 편, 『재일코리안사전』, 정희선 · 김인덕 · 신유원 역, 선인, 2012.
김덕룡, 『바람의 추억 : 재일조선인1세가 창조한 민족교육의 역사(1945-1972)』, 선인, 2009.
김정일, 『주체문학론』,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송혜원, 『‘재일조선인 문학사’를 위하여-소리 없는 목소리의 폴리포니』, 소명출판, 2019.
오자와 유사쿠, 『재일조선인 교육의 역사』, 이충호 역, 혜안, 1999.
윤건차, 『자이니치의 정신사』, 박진우 외 옮김, 한겨레출판, 2016.

3. 논문

- 강태성, 「재일조선인 조선어 소설문학」, 『재일조선인 조선어문학의 현황과 과제』, 2004년도 제2회 조선문화연구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4. 12.
김상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의 ‘민족교육’ 연구-‘영주 · 범민족교육’, ‘다민족 · 공생교육’으로의 변화를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손지원, 「재일동포국문문학운동에 대하여」, 『재일조선인 조선어문학의 현황과 과제』, 2004년도 제2회 조선문화연구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4. 12.
오영호, 「탈식민화 과정으로서의 조선학교 역사-해방 이후 1960년대까지를 중심으로-」, 배지원 · 조경희 엮음, 『재일조선인과 조선학교-투쟁의 시간, 삶의 공간』, 선인, 2017.
윤송아, 「재일조선인 문학에 나타난 민족교육의 역사와 탈식민성-『보쿠라노하타』의 초창기 민족교육 재현양상을 중심으로-」, 『동남어문논집』

47집, 동남어문학회, 2019.

정진성, 「조총련 조직 연구」, 『국제·지역연구』 14권 4호,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05. 겨울.

허명숙, 「재일동포 작가 량우직의 장편소설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14, 한중인문학회, 2005.

_____, 「재일동포 한국어 장편소설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0권 2-1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6.

4. 기타 자료

「재일조선문학(작품, 평론)집 목록」, 『문학예술』 제110호, 2009년 6·7월호.

박종상, 「조선글로 소설을 쓰는 의미」, 『겨레문학』 제3호, 2000, 겨울.

오규상, 「전환된 동포운동, 총련 결성과 초기의 활동-[기획연재] 총련과 그 역사를 알아보다(2)」, 『현장언론 민플러스』, 2018. 9. 4.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온라인카페

<http://cafe.daum.net/mongdanglove/UA2F/6>(검색일: 2019년 7월 1일)

❖ ABSTRACT

Organization of Chongryon and racial education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 focusing on the reappearance aspect of the
‘Chosun School’ of the Chongryon organization period in
『Bombi (spring rain)』 of Park Jong-sang and
『Seogok (prelude)』 of Ryang U-jik

Yoon, Song-Ah
Dongduk Women's University

The organization of Chongryon in 1955 is the period of a new branch point for the movement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and the change of racial education. Based on North Korean awareness and direct connection as overseas citizen, the physical and ideological base of organizational and systematic racial education was prepared, the educational system was reorganized, and the ‘Chosun School’ started to embody and express racial identity as security for certain directivity. This thesis considered the reappearance aspect of the ‘Chosun School’ in the period of the Chongryon organization period that appeared in the literature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by focusing on long novels showing the realities of racial education under the background of the Chosun School right after the Chongryon organization in 1955, 『Bombi』 of Park, Jong-sang and 『Seogok』 of Ryang, U-jik, in consideration of significances and differentiations of the Chongryon organization. In two works, under the same subject of the school establishment project, sacrifice, and the challenge of racial education that are not tired, love for students and practical education activities are formed in multiple angles. Also, due to the continual hindrance of the enemies of ‘mindan’, the planned education projects often failed. In the depressed situation, because of the organizational union of teaching staff

and regional people around the school and educational supporting funds delivered from North Korea, the hopeful situation that was achieved facing the assignment, the school establishment project, is jointly displayed. This thesis examines the correlations between the Chongryon organization and racial education, certain narrative structure of ‘Chosun School’ treating the period, the hardship and struggle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around racial education, and the history of overcoming by considering the intensively joint subjects of two novels, prototypicality of people, tendency of accidents, etc.

Key Words : Racial education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Chongryon, Chosun School, Park Jong-sang, 『Bombi (spring rain)』, Ryang U-jik, 『Seogok(prelude)』, School establishment project

■ 논문접수일 : 2019. 11. 10

■ 심사완료일 : 2019. 12. 01

■ 게재확정일 : 2019. 12. 03

